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 성서, 목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등

1. 시작 성가: 91(구세주 빨리 오사)
2. 목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서 읽기: 루가 7,18-23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공지사항 -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칩시다.
 - 구역별 관공성사를 잘 준비합시다.
 - 영세를 준비하는 예비신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12월 22일 영세식)

* 다음 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95(별들을 지어내신 주)

MEMO

대림시기

대림시기는 주님의 ‘도래’ 또는 주님의 ‘다가오심’ 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주님의 ‘오심’ 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모양의 주님의 ‘오심’ 을 기념하여 거행하며 되새기거나 갈망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① 역사적 탄생을 기념

2천 년 전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대림절의 여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역사적 도래를 기념하는 성탄과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② 영광스런 재림을 고대

대림시기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힘써 깨어있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시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4).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복음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구체화되셨다는 것입니다.

③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오심

대림시기를 지내면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진정 나에게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요한 14,23)

◆ 대림환의 특징

1. **둥근 모양** : 하느님께서서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분임을 상징

2. **푸른 환** : 생명, 희망, 승리를 상징

3. **대림초** :

* 네 개의 초는 대림 네 주일을 의미하며, 주일마다 하나씩 새 초에 불을 붙인다.

-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4천년을 의미한다.

- 동서남북의 네 방향을 가리키며, 그리스도의 빛은 세상 모든 곳을 두루 비춘다.

- 빛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 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서서 인도한다.

* 초의 색깔 : 성탄 대축일에 가까워질수록 보라색에서 흰색으로 변해간다.

- 어둠에서부터 밝은 빛으로 가까워진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

-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심을 의미. (구세주의 탄생의 기쁨)

* 초를 켜는 순서는 **보라 → 연보라 → 분홍 → 흰색** 순으로 주간에 하나씩 늘려가며 밝힌다.

- 대림 1주(희망) : 세상 종말에 대한 준비와 경고

- 대림 2주(평화) : 세례자 요한의 구세주 오심에 대한 속죄와 권유

- 대림 3주(기쁨) : 구세주 탄생의 임박함에 대한 준비와 기쁨

- 대림 4주(사랑) : 성모 마리아의 넘치는 기쁨을 드러냄



하느님 나라의 기쁨

- 루가 7,18-28 -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갈릴래아에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 온 메시아인가?’ 를 직접 물어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인지는 요한에게도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온갖 질병과 고통과 마귀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또 많은 소경들의 눈도 뜨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메시아이심을 알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진정 행복합니다. 요한은 이런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였으리라 짐작합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현재의 예수님에 대해 질문한 것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과거에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를 상기시키며, 요한에 대한 군중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고운 옷을 걸친 사람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는 요한을 감옥에 가둔 헤로데 안티파스를 빗대어 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군중은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 정도로 간주했지만, 예수께서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인물” 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 까닭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닦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이라도 그 사람보다는 크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하느님 나라에서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곤궁과 질병, 죄와 죽음의 세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유와 기쁨, 행복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 모든 것을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던 날은 지나가고 주님의 열로 조명된 날, 영적인 시각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는 날이 온 것입니다. 보아도 못 알아보고 들어도 못 알아듣던 ‘생명의 신비, 구원의 신비, 주님의 손길’ 을 조금씩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눈과 귀, 마음을 열어 ‘세상 삶의 본질적인 것’ 을 밝혀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 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눈떨어서 보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보게 되고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고 절름거리며 걸던 사람이 제대로 걷는다. 모두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았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 하신 일은 저마다 본연의 모습을 되찾도록 그 길을 가르치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었다. 스승을 의심하지 않는 데 제자의 행복이 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나눔>

1. 각자의 삶 속에서 일그러진 부분은 무엇입니까?
2.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 저는 집집마다 구걸하며 -

저는 집집마다 구걸하며
가난한 마을길을 걸었나이다.
때마침 임의 황금 마차가
황홀한 꿈처럼
멀리 그 눈부신 모습이 보였나이다.
왕 중의 왕은 누구실까 궁금했나이다.

저의 희망은 높이 솟구치고
이제 저의 불행했던 세월은 끝난 듯 생각되어
구걸치 않아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고
흙먼지 속엔 온통 뿌려질 보배를 기대하며
저는 서 있었사옵니다.

마차는 제 곁에 와 멈추고
임은 저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으시며 내려오시니
제 생애의 행복이 마침내 찾아온 듯 하였나이다.
그때, 임은 갑자기 오른 손을 내미시며
"그대는 내게 무엇을 주렵니까?" 물었나이다.

걸인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하실 줄이야
너무나 심한 장난이 아니셨는지...
저는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서 있다가
바람 속에서 작은 낱알 하나를 꺼내어
임께 바쳤사옵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어
바람 속의 것을 모두 바닥에 쏟아
거기 초라한 물건들 속에
아주 작은 황금구슬을 발견했을 때
저의 놀라움은 얼마나 컸는지
저는 소리 내어 통곡을 하였나이다.

제가 가진 것 남김없이
임께 드리지 못했음이
제게는 몹시 슬펐나이다.